

“대규모 재정 수요, 도민자본 육성·해결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현길호 의원 “도의회 재정전략회의 도입을”



현길호 의원

눈앞에 닥친 제주도 대규모 재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민자본을 육성하지는 않겠나”라는 의문이 제기돼 세수 감소가 예견되는 제주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주목된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지난 16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대규모 재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가용예산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대안으로 도민자본을 육성하고, ‘의회-집행부 간 재정전략회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

30년까지 제주도의 대규모 재정수요 분야는 상수도 유수를 제고(현재 45% → 2025년 85%) 1조1014억원, 하수도 처리시설 확충 총규모 7409억원(지방비 4954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조 8108억원, 미분양지 보상비 약 1조2398억원을 포함해 총 5조8929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은 “2018년 가용예산 규모는 1조1250억원이지만 경제성경비와 경직성사업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55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금 의회와 도 간 상설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재정 관련 전략회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현 의원이 제안한 재정전략회의는 예산 심의 때 우선순위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막기 위한 장치이며, 1년에 2회(1월, 6-7월) 열어 국가재정계획과 중



원희룡(왼쪽) 도지사가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도의회 제공

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지는 것이다. 이에 원희룡 도지사는 “아주 좋고 적절한 제안이라 생각한다”고 맞장구쳤다.

이와 함께 현 의원은 “원 지사가 과거 시정연설을 통해 도민자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이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대규모 개발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선언에 그치지 않된다. 제주특별법 특례로 명시된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관련 조례(가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자본 육성 및 지원 기본조

례’)를 제정해 도민자본의 정책적 개념과 정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4차산업혁명 펀드나 아니면 동북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도두동 하수처리장 등을 민간에 전국입찰을 붙일지 또는 공공이 직접 발주할지에 대해 도민자본을 육성한다는 큰 원칙을 삼고 관찰하려고 한다”며 “지역사업에 대한 우대 조치 취지는 잘 알겠다. 좋은 제안이라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표성준기자

“대형 항공기·도민할당제” 요구 제안 문경운 의원 “유일 교통수단 도민 이용권 보장”



문경운 의원

제주공항의 제한된 슬롯과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형 항공기 운항과 도민할당제를 요구하는 제안이 나왔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6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도와 다른 지역을 잇는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인 항공기 이용의 안전과 편의 대책을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제주공항에서 2013년과 2017년 9월 발생한 항공기 충돌 위기의 원인은 관제탑의 구조적 문제와 항공기 이동을 감시하는 레이더 관제장비, 음성통신 제어장치가 내구연한이 경과해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윈드시어 경보가 올해 8월까지만 해도 135건이 발표됐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관제탑 신축예산 212억원과 관제장비 교체 예산 338억원, 윈드시어

관측 장비 예산 3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문 의원은 또 “90%의 탐측률을 보이는 제주공항은 단기대책으로 35슬롯을 40슬롯으로 늘려 여객처리능력을 2589만명에서 3175만명으로 늘린다고 하지만, 지금도 비정규슬롯을 이용해 연간 30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1분40여초에 한 대씩 뜨고 내리니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공항 수용객보다 많은 여객인원을 수용하다 보니 이용객 불편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지난해 제주공항은 739억원의 항공수익과 1302억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했지만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보다 임대수익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며 “제한된 슬롯 속에서 많은 이용객을 수용하기 위한 대형기 위주 공항을 활용하고, 도민 불편을 낮추기 위해 항공기 도민할당제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장기적으로는 타당성 재조사 검토 결과 결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제2공항을 통해 안전과 편리, 쾌적함의 3박자가 맞춰질 것”이라며 “대형 항공기는 계속 요청 중이고, 도민할당제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전기차 연관산업 활성화 지지부진 강성의 의원 “정비·폐배터리 활용 준비해야”



강성의 의원

전기차 보급뿐만 아니라 정비와 폐배터리 활용 등 연관산업도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16일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카본프리 아일랜드가 아직 태양광·바이오 등을 통해 화석연료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지난해 2012년 5월 ‘2030 탄소 없는 섬 제주(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구상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민간 개인 소유가 70% 이상인데도 공공기관과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하면 3.7% 정도이고, 여기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3150억원이다. 충전기 보급 예산까지 합치면 5000억원 정도인데, 이 돈

다 어디 갔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또 “2030년까지 제주도 자동차 등록대수를 37만대로 가정해 100%로 전환한다면 6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제주 환경에 맞는 미래산업과의 연결 가능성 때문에 전기차 보급 정책을 열심히 해왔지만 도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연관산업이 준비됐는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이어 “2022년까지 지금의 10배인 14만대 보급 계획을 추진하려면 그에 따른 정비와 폐배터리 활용 문제도 준비해야 한다”며 “전기차 정비업체 10개소 중 5개소가 화북공업지역에 있어 새로운 전기차 관련 산업 생태계 조정에 구상하려면 화북단지 이전·재생과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민간 차원에서는 카이스트의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가 내년에 제주로 이전해 자율주행·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사업 등을 제주도와 공동 추진할 예정”이라며 “소소형 전기차는 제주의 도로 현황과 이미지에 맞기 때문에 내년 1000대 목표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요지(질의 순)



축산분뇨 악취 해결 방안은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행정자치위원회)=이주민 지원정책과 제주센터 건립 추진 상황은, 축산분뇨 악취 문제 해결 방안은, 애월항을 복합항으로 전환 위한 대책은, 하차경매 대책으로 산지경매시스템 도입과 유통공사 설립 방안은, 발농업 산지경매 인프라 냉동물류시설 구축 방안은, 발농업 지원 확대 방안은, 농업연장 문제에 따른 휴경보조금 확대 방안은, 주택 허가에 따른 하수 대책은,



임대주택 확대 보급 추진 상황은

▶윤승광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안전위원회)=파크골프 이용자가 증가에 따른 전국대회 규모 유지 수준의 파크골프장 건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서귀포항 1만t급 선외장 건설 관련 계획은, 공공 임대주택 확대 보급 관련 추진 상황은,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 운영 관련 대책은, 미치는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 대책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 입장 및 계획과 숙의형 정책개발 대상 여부에 대한 견해는,



제주경제 악화 따른 대응 방안은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도시위원회)=제주경제의 악화와 대응 방안은, 제주도 세입 전망과 도시사 공약 재원 확보 방안은, 제주특별법 및 4·3 특별법 개정 등과 관련해 지사의 대응양 결속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구체적 실현 방안은, 버스준공영제 표준원가로 지급되는 정비비 및 정비직 인건비의 실비정산 변경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대책은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관광체육위원회)=근근공원인 산산공원 속 삼성혈, 민속자연사박물관, 자유총연맹을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시킬 방안은, 문화재와 신설 등 세계유산본부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세계섬문화축제 개최 추진 여부는, 한국에슬종합학교 분원 설치 계획은, 옛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은, 옛 중앙병원 매입 후 창업클러스터 조성과 생활문화 공간 재배치 논의 계획은,



농업예산 비중 감소 대책은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농수축경계위원회)=농업정책 추진 방향과 농업예산 비중 감소에 따른 대책은, 농업 관련 부서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은, 대통령께서 약속한 강정주민 사면 관련 추진 방안과 지원사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발전계획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크루즈 선박 유치 방안과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은, 크루즈 선박에 강정지역 농산물 공급방안에 대한 견해는,



제주도민 행복지수 향상 대책은

▶부남 의원(교육위원회)=제주도민의 삶의 만족도(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은,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도정에서 추진한 내용은,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전담기구(사무국)의 마련과 협의체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 도심주차난 해결 위해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조성으로 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논의할 의향은, 화북공업단지의 이전과 향후 활용 계획은,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 확대 의향은

▶최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행정자치위원회)=공무원 유관기관 파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읍면동장 개방형 직위 도입 방안은, 지역인재 채용 및 사회적 약자 대상 특별채용 확대 방안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 및 고용 확대 방안은, 공공근로 등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 확대 의향은, 농가부채 경감대책 강화 및 제주형 직불금 제도 도입 등 농가부채 경감 종합대책 방안은,

2019학년도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입생 모집

2019학년도 경영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야간)

1. 모집인원 : 59명
2. 모집학과 : 경영, 회계, 관광경영, 무역, 부동산경제, 경영정보, 관광개발학과
3. 전형방법 : 특별전형(서류전형 및 면접)
4.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18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는 자로서 출신학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jnumba.jejuu.ac.kr>) 참조.
5. 원서교부 및 전형일시

|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 | 면접고사 | 전형일시 |
|------|----------------------------|-----------------------|-----------------------------|
| 특별전형 | 2018.11.19.(화) ~ 11.29.(목) | 2018.12.7.(금), 10:00~ | 경상대학 2호관 0262강의실 (모집학과별 실시) |
6.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경상대학 2호관 행정실 (지원서는 홈페이지 출력 사용가능)

※ 자세한 사항은 경영대학원 행정실(경상대학 2호관 2층)로 문의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연락처 : TEL(064)754-8306, FAX (064)755-6180

경영대학원 제30기 최고경영자과정 신입생 모집

1.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 모집인원 | 전형방법 | 지원 자격 |
|--------|-------|---|
| 60명 내외 | 서류 전형 | · 공·사기업체의대표, 임원 및 중견관리자 · 정부/지방 5급 이상 공무원 및 군공보 · 의사, 약사, 변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 각 사회단체의장 및 주요 임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신분 ※ 학력, 연령 제한 없음 |
2.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8.12.3.(월) ~ 12.31.(월)

※ 지원서는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jejuu.ac.kr>) → 대학/학부-특별과정-최고경영자과정에서 출력 사용가능
3. 접수방법 :

☑ ① 방문접수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2호관 2층 경영대학원 행정실
☑ 우편접수 : 제주시 제주대로 102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행정실
☑ E-mail접수 : ekdms630@jejuu.ac.kr 팩스접수: 064-755-6180
4.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19:00~20:40 (1학기 15주, 2학기 15주강의)

※ 자세한 사항은 경영대학원 행정실(경상대학 2호관 2층)로 문의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연락처 : TEL(064)754-2171~2, FAX(064)755-6180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장

2 / 0 / 1 / 8 / 도 / 민 / 강 / 좌

'건강한 제주 만들기 캠페인 여섯번째'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가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

용서

일시 2018년 11월 22일(목) 14:00~16:00

장소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백록담홀)

문의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64-759-0911)
제주금연지원센터(064-758-9030)

대상 제주지역 주민 누구나 선착순 200명

비용 무료

주최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제주금연지원센터

후원 (의)연강의료재단 연강병원

※ 강연 후 주교님 친필 사인 도서와 TV등의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